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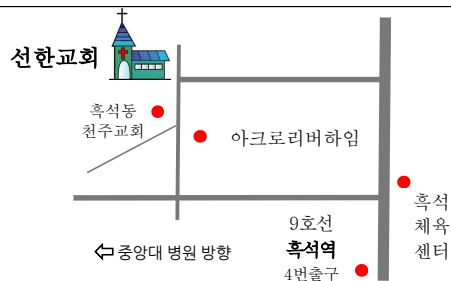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 내 선교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전임전도사 김 진 만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교육전도사 윤 영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은 퇴 장 로	협력전도사 오 효 남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고 상 돈, 김 대 희	관 리 장 로	손 석 규
	박 희 태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장 로 조 계 승 (집사장)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장 로	유 신 웅, 조 윤 익		
	박 영 근, 윤 호 중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맛보아 알지어다 (시34:8)
Taste And See

실 천 사 항 3가지 습관 기록 교사훈련 선교사의 삶

삶 의 방 식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빌 4:1-7)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고린도전서 7:17)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1부 오전 9: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2부 오전 11:00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9장 (통일찬송가 53장)
교	독 문	교독문 21 (시편 34편)
찬	양 과 경 배	323장 (통일찬송가 355장)
기	도	합심기도
말	씀 봉 독	고린도전서 7장 17 ~ 24절
설	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교회여 일어나라
축	도	임춘배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지혜로운 자의 30가지 습관 2 (잠23:1-16)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배 안 내
* 2주간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1. 주일예배: 주일예배는 11시 (영상)예배만 드립니다.
2. 주중예배: 수요일예배와 금요일기도회는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2. 개인경건훈련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일독하기(3차): 이번주 범위 (대하27장~욥기8장)
4. 경건서적읽기
5.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3. 코 로 나 1 9 기 도 제 목
1. 열방이 우상숭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3.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 합니다.
4.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 도록 기도합니다.
5.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6.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 시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개인 경건 훈련에 지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의 예배가 회복 되도록
--------------	---

복음의 능력과 약속

찬송 :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546장(통 399)

본문 : 이사야 49장 8~13절

말씀 :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행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우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믿는 자의 기도에도 대한 응답과 도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귀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들린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그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붙잡는 자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상속케 한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황무하였던 땅’은 죄가 다 망쳐 놓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이 세상의 황무한 땅을 다 차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복음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잡혀 있는 자에게 나오라 하시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고 명령하신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잡혀 있는 자’란 죄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모두 죄의 종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나오라’고 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 죄에서 나오라’고 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흑암에 억압된 자들에게는 ‘나타나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빛으로 나오라는 초청입니다. 모든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빛으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외치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조금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산 같은 장애물을 하나님께서는 길로 삼으시기 때문이지요.

그때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먼 곳에서나 동서남북 어느 곳이든 복음이 찾아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때 온 하늘과 땅과 모든 산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의 고생이 사실상 완전히 끝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위대한 복음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만큼 누구든지 흑암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조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은혜의 말씀

제 목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고전7:17-24)

서론

각 성도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4 25

1. 부르심 받은대로 섬기라

- (1) 하나님은 각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시다(17절)
- (2)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20절)
- (3) 할례자는 할례자로 무할례자는 무할례자로(18절), 종은 종으로 자유자는 자유자로(21절)
- (4) 더 중요한 것은 ①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19절)
②사람들의 종이 되지말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23,22절)

2. 교훈

- (1) 나의 부르심을 받은 상태는 무엇인가?
- (2) 나의 부르심을 받은 상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 (3)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결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감사하며 신실함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배 기도

윤호중 장로

박영근 장로

매일 Q.T.		의로우신 재판장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도	날짜 : 6월 5일
찬양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본문	시편 7:1-17		
말씀요약	시편 기자는 쫓아오는 자들에게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진노로 대적들의 노를 막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는 만민을 심판하시는 주님께 자신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 판단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의 분노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목상질문 1	대적에게서 구하소서 7:1-9 시편 기자는 자신의 무고함을 어떻게 주장하나요? 사회에서 억울할 일을 당해 명예와 인격이 손상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목상질문 2	악인의 결국 7:10-17 의로우신 재판장이 회개하지 않는 악인에게 행하시는 심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내어 버릴 악행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시편 7편 11-12절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매일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죄지는 자’가 가는 곳이라기보다 ‘회개하지 않은 자’가 가는 곳입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회개의 길, 의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면,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답후 4:7-8).		
적용			
오늘의 기도	억울함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대적들로부터 저를 건져 내시는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을 의지합니다. 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혼으로 감사 찬송을 이어 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 죄악의 유혹을 떨쳐 버리게 하소서.		

개인성경공부 “창조주 하나님 찬양”	
찬양과 기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새 79, B b→C) 여호와 우리 주여
목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몇 해 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성도님이 나눠 주신 간증입니다. 성도님은 몇 년 동안 용돈을 절약하며 경비를 모았고, 드디어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출발한 여정은 마냥 즐겁기만 했습니다. 그중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이것입니다. 하루는 새벽에 숙소를 출발해 몇 시간 동안 언덕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소위 낙타길이라고 부르는 이 코스는 구불구불한 언덕길에 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낙타를 타고 오르내리기에 곳곳에 낙타의 배설물이 있는 험든 길입니다. 어두운 새벽에 험한 길을 올라가며 낙타 배설물과 돌을 피하느라 팀원 모두 땅만 쳐다보며 갔습니다. 얼마쯤 갔을까, 인솔하는 선교사님이 이 모습을 보더니 멈춰 서서 말했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땅바닥은 그만 보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 잠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쏟아질 듯 반짝이는 별들이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었습니다.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한 광경이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언덕을 오르는 중이라 땅에는 돌과 배설물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걷자 언덕길은 조금 전에 힘들어하던 고생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고백을 하며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산책로가 되었습니다. 낙타길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길이 되었습니다. 자연을 보며 여호와와의 위엄을 감탄하며 찬양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말씀 나누기	시편 8:1-9
목상포인트	하나님의 이름은 온 땅 가운데서 찬양받기 합당한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사 43:21).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분의 통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권세를 하나님 말씀과 뜻에 따라 선하게 사용하며 이 땅을 다스려야 합니다.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온 세상에서 찬양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목상	시편 기자는 어떻게 창조주를 높이며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나요?(1, 9절)
적용하기	들에 핀 작은 꽃 한 송이에서, 압도하는 자연 경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는지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주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주님을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저를 창조하셨으니,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억울한 약자를 위해 악인을 징벌하소서	날짜 : 6월 11일
찬양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본문	시편 10:1-18		
말씀요약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냐고 탄식합니다. 악인이 교만한 얼굴로 가련한 자를 압박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악인의 팔을 꺾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목상질문 1	악인에 대한 서술 10:1-11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어찌하여’라고 탄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고 하는 행동들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 10:12-18 시편 기자가 간구한 ‘겸손한 자의 소원’(17절)은 무엇인가요? 악이 만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한절묵상	시편 10편 3-4절 ‘악’이 무엇인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입증됩니다. 모든 악인은 하나님 앞에 불손하며 적대적입니다. 탐욕 부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이 불의를 바로잡지 않으신다’고 비아냥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들이 악인일 수밖에 없고 또한 악인이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음’은 모든 악의 근본 원인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악인의 길은 견고해 보이고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여호와여!”라는 외침이 제 입술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악인의 팔을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도우실 것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소서!		

매일 Q.T.		인간 창조에 나타난 창조주의 위대함	날짜 : 6월 8일
찬양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본문	시편 8:1-9		
말씀요약	시편 기자는 온 땅에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과 하늘까지 덮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 권능을 세우셔서 원수와 보복자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 씌우셨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목상질문 1	하찮은 인간을 돌보시는 하나님 8:1-4 시편 기자는 우주와 비교할 때 인간이 어떠하다고 느끼나요?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상질문 2	인간을 위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8:5-9 시편 기자는 인간 창조의 위대함을 어떻게 묘사하나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사실이 내게 어떤 자긍심을 주나요?		
한절묵상	시편 8편 2절 어린아와 젖먹이의 입이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을 세울 수 있을까요? 어린이는 항상 ‘엄마’, ‘아빠’를 입에 달고 삽니다. 믿고 의지할 대상이 엄마와 아빠기 때문입니다. 젖먹이는 엄마 품에 안겨 젖을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을 때, 어린이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만을 의지하는 연약한 자들을 통해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 보잘 것 없는, 티끌 같은 저를 변함없이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제게 허락하신 사람과 자연, 세상을 소중히 대하며 온 땅에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소서.		

매일 Q.T.		지존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주	날짜 : 6월 9일
찬양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본문	시편 9:1-10		
말씀요약	시편 기자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이 행하신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의로운 심판자이신 주님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주님은 압제당하는 자와 환난 때의 요새가 되시며, 그분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목상질문 1	감사의 고백 9:1-6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겁게 찬송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결로 내가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구원의 체험에서 깨달은 교훈 9:7-10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나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하나님에 관한 교훈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시편 9편 10절 주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인간관계에서처럼 그저 이름만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부르실 때 응답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신뢰요, 주님을 찾는 간절함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말을 빌려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내게 구원의 꽃으로 다가오십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오늘도 제 삶 구석구석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답답하고 억눌린 제 마음과 상황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공의와 정직으로 행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매일 Q.T.		주님을 잊지 않는 백성은 영원히 잊히지 않습니다	날짜 : 6월 10일
찬양	찬송가 386장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본문	시편 9:11-20		
말씀요약	시편 기자는 피 흘림을 심문하시는 이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다고 고백합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얽힐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 앞에서 이방 나라들이 심판받게 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목상질문 1	찬양 권고와 과거에 체험한 구원 9:11-16 시편 기자가 청중과 더불어 감사하고 찬양하려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누구에게 전하면 좋을까요?		
목상질문 2	구원 확신에 대한 고백 9:17-20 악인들과 하나님을 잊어버린 나라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죄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의지할 수 있을까요?		
한절묵상	시편 9편 19-20절 사람의 삶은 인생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생 앞에서는 천년의 세월도 밤의 한순간일 뿐이며 인생은 티끌로 돌아갈 운명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결코 영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인생은 죄인이기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하나님 영광을 욕되게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자신이 인생임을 깨닫고 영생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믿는 자들을 영원히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고난 중에도 힘을 얻습니다. 버려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제 인생을 끝내 승리로 이끄실 주님을 소망하며 일어나게 하소서.		